

미취업 여성의 미취업 원인에 대한 연구: 자발적 미취업과 비자발적 미취업 여성의 차이¹⁾

이 성 립*

본 연구는 여성의 취업 및 미취업의 현황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미취업자 분류기준으로 취업의사 유무 이외에 미취업자의 의중임금과 시장임금 기준을 추가하여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큰 경우를 자발적 미취업, 그 반대의 경우를 비자발적 미취업으로 미취업유형을 세분화함으로써 미취업 원인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여 보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로 한국노동연구원의 1-5차에 걸친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고 분석방법으로 미취업자의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의 추정에 Heckman sample selection 회귀분석, 미취업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프로빗과 다범주로그짓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여성 미취업자 중 미취업상태가 안정적인 취업의사 없는 자발적 미취업자는 약 50%, 미취업상태가 불안정한 비자발적 미취업자이거나 취업 의사 있는 미취업자는 약 50% 로 나타났고 여성의 인적자본 수준, 자녀양육 및 가사 부담, 가계 경제 상태, 이전직장 경험이 미취업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여성인력활용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 서론

우리 나라에서는 출산율의 저하로 2020년경부터 생산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현재 추세라면 가까운 장래에 노동력 부족과 연금기금 고갈 등의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우리 사회에서 현재 약 절반 정도만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일간지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동아일보, 2001. 7월 19일자)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한국 대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54%)을 90%대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매킨지연구소에서 내놓았다고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한국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서비스업과 지식산업 등의 분야에 3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야 하는데 이 가운데 대졸 이상 인력이 채워야 할 전문직이 120만개지만 현 인력배출 구조상 남성인력 전원이 새로운 전문직에 충원되도 모자라서 이 자리를 대졸 여성들이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노동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노동공급)와 관련된 개인 및 가족특성을 밝히고 있고 취업 여성의 연령 및 교육수준, 가족상태, 산업 및 직업, 임금수준, 직업지위 분포 면

*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조교수

1)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C00148)

에서의 여성 노동을 잘 설명하고 있다.

선행연구로부터 여성이 취업하지 않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의 가치(의중임금-reservation wage)가 시장노동 시간의 가치(market wage)보다 큰 데에 기인하는데, 가사노동시간의 가치(의중임금 수준)는 본인의 학력, 비근로소득, 다른 가계구성원의 소득(특히 남편의 소득), 자녀수, 막내자녀의 연령, 부인의 가사노동대체 여부와 관련되고 시장노동 시간의 가치는 학력, 연령, 노동경력 등의 요인과 관련된다고 밝혀졌다(여정성, 1994; 문숙재·김순미·윤소영, 1996; 김순미·김혜연, 1998; 조유현, 1998; 김혜연, 2000; 김지경·조유현, 2001; 김지경, 2002).

다른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차별과 여성의 낮은 지위와 연관된 문제로서 여성의 노동시장이 저학력, 단순직 중심으로 발달한데서 찾아 볼 수 있다(최강식·정진화, 1997; 김영옥, 1998; 금재호, 2000). 여성 취업자의 대다수가 저기능, 저숙련 직무에 종사하고 여성 임금근로자의 대부분은 임시, 일용직으로 사무직, 서비스판매, 기능, 조립직, 단순근로 등의 저생산, 저임금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서 고학력자일수록 전문직이나 고임금, 고숙련직을 선호한다고 할 때 직종 분포 상 이들의 취업기회가 제한된 데에 기인한다. 따라서 취업할 의사는 있으나 이러한 현실적 한계 때문에 고학력 여성일수록 실망실업자의 형태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김영옥(1998)의 분석에 따르면 취업여성의 절반 이상이 결혼과 더불어 노동시장에서 퇴진하고 있고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현저히 감소한다. 30대 이후 본격적인 출산과 양육기간이 지나면서 비경제활동상태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학력별로 재진입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중졸 이하의 저학력 여성들은 출산 및 육아시기를 지난 이후에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는 비율이 높으나 대졸이상의 고학력 여성의 경우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최강식·정진화 1997), 이는 기혼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가 단순직, 미숙련직 등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와 연관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김영옥, 1998).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중심의 연구로부터 취업하지 않은 여성 노동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취업하지 않은 여성의 노동공급과 관련된 상태를 보다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여성 인력활용 방안을 구축하고 실효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여성의 미취업은 자녀 양육 등 가사 일에 보내는 시간이 시장노동에 보내는 시간보다 효용이 클 때 시간 사용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서 자발적인 미취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시장노동의 가치가 가사나 육아에 보내는 시간의 가치보다 크지만 차별적 고용관행이나 관리 및 전문직 등 고학력 고임금 여성 인력의 채용을 기피 한다던가 또는 다른 이유로 여성 노동에 대한 수요의 부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취업을 하지 못한 미취업은 비자발적인 선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미취업자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고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려고 하는 여성과 함께 취업할 의사가 없는 여성들도 존재한다.

미취업자의 이러한 차이에 따라 여성인력활용 가능성과 활용방안에 차이가 있음은 명백하다. 여

성인력활용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반수 이상의 여성들이 왜 취업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을 직접적으로 알아 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미취업여성을 미취업 원인에 따라 유형화시키고 미취업 유형별로 규모와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미취업 여성을 미취업이 자발적인지 아니면 비자발적인지, 그리고 취업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취업할 의사가 없는지의 기준에 따라 네 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하고 여성의 미취업 현상을 조명하여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여성의 노동공급에 대한 이론적 고찰

본 연구의 논의의 출발은 시장노동과 가사일, 여가에 어떻게 시간을 배분하여 사용하는가를 설명하는 고전적인 선택이론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노동공급 이론). 시간배분에 관한 고전적인 선택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시장재화와 가계생산을 통해 만들어지는 소비재를 소비함으로써 만족을 얻는다고 가정한다(Becker, 1965; Abbot · Ashenfelter, 1976; Killingsworth · Heckman, 1986). 시장상품은 일을 함으로써(시장 노동에 시간을 투입한 결과) 얻는 소득으로 구입하는 것이고 가계생산은 이러한 시장상품을 직접 소비할 수 있는 형태(소비재라고 하기로 하고 여가도 넓은 의미의 소비재에 포함시키기로 한다)로 만드는 과정으로 가계생산에는 시장상품(시장노동시간) 이외에 시간(가계생산시간)이 소요된다.

개인은 일정한 시간 제약과 가계생산의 제약, 그리고 시장 노동을 통하여 벌 수 있는 소득과 자산의 한도 내에서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시장재화 즉, 시장노동시간과 가계생산시간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가계생산물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산업화되어서 소비재의 생산에 시장상품과 가계생산시간은 서로 대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면 집에서 음식 재료를 가지고 가계생산을 통하여 식사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편의식품에 간단한 준비 과정을 거쳐 식사를 마련할 수 있으며 식당에서 완전히 준비된 식사를 사서 먹을 수도 있다. 어린 아이가 있는 경우 어린 자녀를 본인이 집에서 직접 돌볼 수 있고 사람을 고용하여 맡기거나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 시장재화에 대한 수요는 이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소득의 수요와 연관되고 소득의 수요에 해당하고 노동의 대가로 임금이나 보수가 주어지는 시장노동 시간에 대한 수요를 의미한다.

시장재화(즉, 재화획득에 사용하는 소득을 버는 노동시간)와 가계생산 시간의 소비로부터 얼마나 만족을 얻을 수 있는냐는 어느 편에 가치를 두는가에 대한 개인의 선호체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Blau & Ferber, 1992).

첫째, 가정에 어린 자녀나 환자가 있다면 집안에서 이들을 돌보는 가계생산의 가치가 증가하고 또한 시장재화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가계생산 시간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둘째, 개인의 선호체계는 시장상품과 가계생산시간이 대체가능한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가계생산이 시장재화로 쉽게 대체가능할수록 가계생산 시간의 가치는 감소하여 가계생산 시간을 줄이고 시장노동 시간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셋째, 개인적인 신념이나 사회규범도 선호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어린 자녀는 반드시 엄마가 직접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시장의 보육서비스로의 대체가 어렵고 시장재화보다는 가계생산 시간의 가치가 증가하여 가계생산 시간이 늘게 된다. 여성의 경제적인 자립이나 사회적 성공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치가 일반화되면 여성의 시장 노동시간에 대해 보다 높은 가치를 둘 것이고 시장노동에 참여하는 여성도 증가할 것이다.

넷째, 본인 이외의 다른 가족원의 소득, 자산, 또는 다른 소득원으로부터의 가계소득이 소비재와 시장의 상대적인 중요도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가능한 시장재화의 양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시간의 가치가 증가하여 가계생산의 가치가 커지고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소득효과라고 하는데 소득효과는 시간집약적인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급격히 증가할 때 비교적 크고 또한 시장재화가 가계생산에 대한 적절한 대체재로 인식되지 않을 때 효과가 커진다. 소득효과가 크면 개인은 시장 노동시간을 가계생산시간으로 전환하게 된다.

다섯째, 시장노동의 임금이 증가하면 가계생산 시간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게 되고 따라서 시장노동 시간에 보다 많은 시간을 배분하고 가계생산 시간을 시장상품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

가계생산 시간의 가치는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의중임금은 시장노동 시간이 0인 점에서 시장재화와 가계생산시간에 대한 개인의 선호체계(효용곡선)의 한계대체율로서 가계생산 시간 1시간을 더 갖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시장재화의 가치이다. 여성의 노동시장에 참여에 관한 의사결정은 시장노동에 보내는 시간의 가치(임금율)와 가계생산 시간의 가치(의중임금-가계생산시간과 시장재화의 한계대체율)를 비교하였을 때 시장 노동시간의 가치가 가계생산 시간의 가치보다 크면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을 떠난다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여성의 취업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지속적으로 가계생산의 가치는 하락하고 시장재화(소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경제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제가 확장되어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하였으며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어 여성의 임금 수준도 향상되었다. 게다가 도시화의 진전으로 가계생산의 시장재화 대체와 시장구매의 편리성은 증가하고 취업기회가 확대되었고 자동차, 에어컨, 컴퓨터 등 각종 생활 편리품과 상품이 새롭게 개발되어 나오면서 생활표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계생산보다는 시장재화(소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왔다. 다른 한편 결혼 연령의 증가, 이혼의 증가, 그리고 출산율의 감소로 가계생산 시간의 가치는 감소하였다는 것이다(Blau · Ferber, 1992).

여성이 취업을 하거나 취업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가계생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의중임금과 시장노동의 가치를 나타내는 시장임금이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는 것은 의의 있을 것으로 보인다(조유현, 1999). 본 연구에서는 미취업 여성의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추정된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을 비교함으로써 미취업이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의 결과인지(자발적 미취업) 아니면 다른 상황적인 요인에 따른 선택의 결과(비자발적 미취업)인지 평

가하여 보고자 한다.

2. 의중임금과 시장임금 추정 회귀모형

미취업자의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을 추정하기 위하여 노동공급이론과 여성의 노동 공급에 대한 선행의 실증연구 결과(여정성, 1994; 문숙재 외, 1996; 김순미 외, 1998; 조유현, 1998; 김혜연, 2000; 김지경 외, 2001; Ferber · Green, 1985)를 바탕으로 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여성의 노동공급 이론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의중임금은 가계생산에 대한 수요, 가계생산의 시장대체 가능성, 가계소득 및 자산, 가계생산과 시장 노동에 대한 개인의 선호 또는 신념, 가계생산의 효율성 등이 영향을 미치고, 시장임금은 인적자본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선행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의중임금= f_1 (가계생산에 대한 요구, 가계생산의 시장대체 가능성, 가계의 경제적 자원, 가계생산의 효율성, 개인적 선호 및 신념)

가계생산에 대한 요구는 결혼상태, 가구원수, 중·고등학생 자녀 유무, 초등학생 자녀 유무, 6세 미만 자녀 유무로 측정하였고 조모나 모친은 동거할 경우 가사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부모나 (조)모친 동거 여부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가계생산의 시장 대체 가능성은 광역시, 지방도시, 군부의 거주지역으로 측정하였다. 가계의 경제적 자원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가계소득, 부채총액, 주택가치, 그리고 주관적인 경제적 어려움 여부를 포함하였다. 가계생산의 효율성은 인적자본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학력이 높은 여성이 자녀양육과 가계관리에 보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들의 의중임금은 높아지며 따라서 고학력 여성은 기대임금이 높아 취업 가능성도 높지만 다른 한편 전업주부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크다는 Blau & Ferber (1992)의 분석에 근거하여 가계생산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학력 및 전공을 포함하였다. 이외에 선호와 신념을 나타내는 변수로 연령, 이전 직장 경험이 있는 경우 이전 직장 임금, 근로시간, 직업 및 종사상의 지위를, 그리고 남성 가장의 직업, 학력, 종사상의 지위를 포함하였다.

시장임금= f_2 (인적자본, 노동시장 상황, 근로상태)

시장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으로 학력 및 전공, 연령, 자격증 유무, 직업훈련 여부, 취업 연수를, 근로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로 종사상의 지위와 근로시간을, 그리고 노동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는 분석에 사용한 자료가 단기의 패널자료이므로 지역에 따른 편차를 반영하기 위해 거주지역변수를 포함하였고 조사 연도에 따른 상황의 변화를 통제하였다.

3.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실태

1997년 경제위기를 맞아 대량 실업이 발생하였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이전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서서히 경제가 회복되면서 다시 증가하여 2002년 현재 15세 이상 여성의 약 절반가량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로 25-34세 연령층에서 급락하고 이후 서서히 증가하여 40-44세 연령층에서 다시 정점에 달하는 전형적인 M자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강식·정진화, 1999), 90년대 여성의 경제활동변화 추이를 고찰한 금재호(2000)에서는 결혼이후에도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이 고원형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15세 이상 여성 인구 절반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에 대한 방대한 양의 연구와 분석은 경제활동에 참여한 여성의 취업실태와 현황, 문제점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연구결과 나타난 우리나라 여성 노동시장의 특징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이 주로 취업한 산업부문은 농림어업, 제조업, 도소매음식 숙박업이며 농림어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으나(최강식·정진화, 1997) 전체 여성 가운데 이 부문의 종사자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대신 여성 중 서비스산업 종사자 비율은 90년대에 크게 증가하였다.

둘째, 종사하는 직업 분포를 보면 관리 및 전문직, 생산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남성보다 낮으나 농림어업, 판매직,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보다 높다. 대부분의 여성은 사무직, 서비스·판매, 기능·조립직, 단순근로 등의 저생산, 저임금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직업경험의 축적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셋째, 종사상의 지위 면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비임금근로자 특히 가족종사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취업의 증가가 남성은 상용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여성은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금재호 2000).

넷째, 실업에 대하여 여성의 실업율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지만 여성의 상당수가 구직활동을 하기 보다는 비경제활동상태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비경제활동상태에서 곧바로 취업하는 비중이 높다(금재호 2000).

여성 노동의 특징적인 현상으로서 여성 노동의 취약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다른 문제점은 경력단절이다. 대부분의 직장 여성들은 낮은 임금과 차별, 불확실한 미래와 경력개발의 한계, 결혼, 육아 등의 사유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걸쳐 노동시장을 떠나게 되고 이러한 경력단절이 고임금, 고숙련, 고기능 직종에의 여성 진출을 저해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김지경, 2002; 박수미, 2002; 김혜연, 2000; 금재호, 2000; 최강식 외, 1997; 방하남, 1996; 문숙재 외, 1996; 조정문, 1994). 금재호(2000)는 90년대 한국 여성 노동시장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은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여성이 저임금, 저숙련 직종에 취업을 원할 경우에는 취업이 용이하지만 고임금, 고숙련 직종에의 취업에는 많은 제약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여성 노동 시장에 대한 진단은 취업한 여성노동의 노동생산성이 대체로 낮고 경력 단절

및 지위의 불안정성으로 취업이 불안정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미취업상태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게 되고 따라서 미취업자 가운데 특히 고학력 여성을 중심으로 방대한 규모의 여성 유휴인력(실업자와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이 존재하는 한편(금재호, 2000) 출산 및 육아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났지만 가사 및 육아 부담이 줄어들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의사가 있는 일시적인 미취업자와 취업할 의사를 갖지 않은 안정적인 미취업 여성이 혼재할 것이다.

미취업자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알아보려고 하는 본 연구에서는 미취업자를 비경제활동인구와 구직자를 포함함으로써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은 모든 여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비경제활동 여성 중에 취업할 의사가 있으나 일자리를 찾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여 구직을 포기한 여성이 상당수 존재함을 감안하여 비경제활동인구를 취업의사가 있는 여성과 취업의사가 없는 여성으로 구분하였다.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 여성은 구직 여부를 떠나 일자리가 있다면 일할 의사가 있는 여성으로 정의하였다.

<표 1> 우리나라 1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추이 %

연도	경제활동 참여율	취업자 비율	구직자비율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	구직단념자 ¹⁾ 비율	미취업자 ²⁾ 비율
1998	47.06	44.39	2.67	52.94		55.61
1999	47.61	45.18	2.43	52.38		54.81
2000	48.59	46.98	1.61	51.41	0.40	53.01
2001	49.48	47.67	1.51	50.82	0.26	52.32
2002	49.71	48.45	1.27	50.29	0.14	51.56

1)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사유로 일거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

2) 구직자+비경제활동인구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III. 연구 목적 및 연구내용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구조의 특성상 미취업의 원인은 질적으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미취업자의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을 추정하고 미취업 여성의 취업의사를 기준으로 미취업 유형을 세분화하여 미취업 원인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을 취업자, 구직자, 취업할 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자, 취업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자로 구분하여 분포 및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미취업자의 미취업 사유가 무엇인지 직접적인 조사자료를 통하여 고찰한다.

둘째, 미취업 여성의 의중임금과 미취업 여성이 취업한다면 기대할 수 있는 시장임금을 추정하고 미취업상태별로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셋째,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크면 자발적 미취업자, 그 반대의 경우 비자발적 미취업자라고 하고 이들을 취업의사가 있는 자와 취업의사가 없는 자로 세분하여 분포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미취업 여성의 미취업 상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여성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IV.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실증분석을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1차부터 5차에 걸친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참여 및 노동시장 이동과정, 소득과 소비의 상태와 변화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한국노동연구원, 1999) 1998년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총 5000가구의 15세 이상 모든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한 이래 현재 2002년까지 5차에 걸친 조사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매해 조사시 원표본가구에서 분가하여 새로 형성된 가구가 표본에 편입되었고 조사가 거듭됨에 따라 최초 표본에서 이탈되는 가구가 생김에 따라 표본 가구 수와 개인 조사대상자의 수는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5차에 걸친 노동패널 조사의 연도별 표본크기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2> 노동패널조사 표본 크기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표본가구수	5,000	4,509	4,267	4,331	4,417
원개인조사대상자수	13,738	11,237	10,740	10,607	10,557
신규표본진입자수	-	803	466	444	409

본 연구는 미취업의 명백한 원인이 되는 학업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분석대상에서 학업을 마치지 않은 학생을 제외하였다. 또한 개인 및 가계 특성에 따라 노동시장에 대한 상태의 변화에 집중하기 위하여 취업 및 미취업의 노동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45세 이후 연령대 여성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노동시장 진입, 탈퇴, 재진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20세 이상 45세 이하 성인여성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각 연도별 조사에 포함된 분석대상 표본 수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체 여성표본 가운데 학생을 제외한 20세 이상 45이하 여성 표본 수는 연도별로 변동이 있으나 전체 노동패널 조사 조사대상 여성의 44%에서 51%의 범위로 나타났다. 20세 이상 45세 이하

여성 가운데 취업자의 비중은 1998년 약 47%로 전체의 절반에 못 미쳤으나 이후부터 그 비중이 증가하여 50% 이상으로 나타났고 2002년 현재 취업자는 약 56%, 미취업자는 44%로 나타났다.

<표 3> 20세 이상 45세 이하 여성(학생 제외)의 노동시장 참여 상태 -빈도(%)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여성전체	6948 (100)	6233(100)	5791(100)	5951(100)	5673(100)
20-45세 여성	3526(50.75)	3079(49.40)	2781(48.02)	2665(44.78)	2515(44.33)
취업자	1664((47.19)	1594(51.77)	1449(52.10)	1439(54.00)	1420(56.46)
미취업자	1682(52.81)	1485(48.23)	1332(47.90)	1226(46.00)	1095(43.54)

2. 분석방법

가. 미취업 여성의 시장임금 추정

취업하지 않은 미취업자의 시장임금은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장임금이 관찰되는 취업자의 임금 자료를 통하여 임금회귀모형을 추정하고 이로부터 미취업자가 취업한다면 받을 수 있는 시장 임금을 추정하고자 한다. 임금회귀식은 Heckman의 2단계 Sample Selection 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1998년 1차 조사에서는 자격증 유무와 직업훈련 여부 등 취업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조사되지 않아서 1차 조사자료를 제외하고 1999년 2차 조사자료부터 2002년의 5차 조사자료의 4년간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임금회귀식의 추정하였다. 패널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오차항을 개인 특성에 따라 체계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c_i), 시간에 따른 체계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부분(v_t)과 임의로 차이나는 부분-랜덤 에러항(ϵ_{it})의 세 부분으로 분리하여 회귀모형을 추정하는 two-factor random effect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패널자료를 사용함으로써 회귀분석에 보다 많은 표본수를 확보할 수 있는 한편 동일한 개인에 대한 오차항(c_i)을 통하여 회귀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개인적인 특성의 효과가 어느 정도 통제 되어 추정된 회귀계수의 정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two-factor random effect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조사시점의 차이에 따른 임금 차이를 v_t 항을 통하여 통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의중임금의 추정에 1998년 조사자료를 사용하고 있어서 연도가 다른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산출된 결과를 같이 놓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영향이 통제된 추정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회귀모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임금추정 표본 선택(sample selection)은 취업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취업여부에 대한 패널자료의 랜덤효과 모형을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1> $z_{it}^* = \gamma' w_{it} + u_{it}$, $u_{it} = d_t + q_{it}$,
 z_{it}^* : 취업여부를 나타내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
 $z_{it} = 1$ (취업) if $z_{it}^* > 0$, $z_{it} = 0$ (미취업) if $z_{it}^* \leq 0$
 w_{it} : 상수항을 포함한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벡터
 u_{it} : 오차항. 오차항은 다시 i번째 개인의 그룹 오차항(d_t)과 랜덤오차항(q_{it})으로 분리함

<식 1>의 회귀모형을 프로빗 랜덤효과 분석방법으로 추정하여 임금에 관한 표본선택 회귀모형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표본선택항 [$\lambda_{it} = \phi(\gamma' w_{it} / \sigma_u) / \Phi(\gamma' w_{it} / \sigma_u)$]-inverse Mill's ratio를 산출하였다. 임금회귀모형에 표본선택항, 람다(λ_{it})를 추가하여 취업자로부터 관찰되는 임금 자료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임금회귀식을 추정하였다.

<식 2> $\log(y_{it}) = a + B'x_{it} + B'\lambda_{it} + c_i + v_t + \varepsilon_{it}$

y_{it} : i 번째 취업자의 t년도 임금
 x_{it} : i번째 취업자의 t년도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벡터
 λ_{it} : i번째 취업자의 t년도 sample selection correction 항
 c_i : 개인오차항
 v_t : 시간오차항
 ε_{it} : 랜덤오차항

임금 회귀모형이 추정되면 미취업자의 시장임금은 추정회귀식에 미취업자의 개인 및 가계특성을 대입하여 산출한다.

미취업자 임금 = $\exp(\hat{a} + B'x_{it} + B'\hat{\lambda}_{it})$; (회귀계수) $\hat{\cdot}$: 추정회귀계수

취업여부 및 임금회귀식에 포함된 표본의 독립변수에 관한 사항은 <표 4-5>에 나타난 바와 같다²⁾.

2) 회귀분석에 사용한 변수에 결측치가 있거나 응답이 잘못된 사례가 회귀분석에서 제외되어서 표본 수가 앞 절의 <표 3>에 나타난 표본수와 차이가 난다.

<표 4>시장임금 추정 표본 특성-빈도(%); 평균(SD)

연도		1999	2000	2001	2002
표 본 수		2966	2688	2560	2448
취 업 자		1546(52.12)	1382(51.41)	1348(52.66)	1293(52.82)
연 령		33.28(7.06)	33.20(7.16)	33.17(7.13)	33.09(7.05)
학 령	중학교 미만	637(21.48)	524(19.49)	459(17.93)	364(14.87)
	고등학교 이하	1572(53.00)	1429(53.16)	1316(51.41)	1232(50.33)
	전문대	299(10.08)	319(11.87)	357(13.95)	380(15.52)
	대학교 이상	458(15.44)	416(15.48)	428(16.72)	472(19.28)
전 공 (전문대 및 대학이상)	인문과학	261(34.48)	230(31.68)	249(32.09)	245(32.07)
	사회과학	106(14.00)	125(17.22)	109(14.05)	110(14.40)
	이공계열	123(16.25)	126(17.36)	179(23.07)	171(22.38)
	의학계열	124(16.38)	109(15.01)	119(15.34)	126(16.49)
	예체능계열	61(8.06)	60(8.26)	61(7.86)	54(7.07)
	교육계열	82(10.83)	76(10.47)	59(7.60)	58(7.59)
결혼상태	미혼자	633(21.34)	627(23.33)	600(23.44)	608(24.84)
	기혼 유배우자	2238(75.46)	1974(73.44)	1896(74.06)	1760(71.90)
	기혼 무배우자	95(3.20)	87(3.24)	64(2.50)	80(3.27)
가족상황	가구원수	4.14(1.16)	4.03(1.11)	4.07(1.14)	3.92(1.12)
	중고등학생 자녀있음	966(32.57)	809(30.10)	711(27.77)	638(26.06)
	초등학생 자녀있음	907(30.58)	832(30.95)	771(30.12)	725(29.62)
	6세 미만 자녀있음 (조)부모/모친 동거	903(30.45) 283(9.54)	751(27.94) 236(8.78)	775(30.27) 223(8.71)	715(29.21) 187(7.64)
가족소득 (단위:만원)	가계소득	161.69(118.41)	175.55(117.02)	197.07(156.31)	238.49(193.67)
	본인소득제외	127.08(113.77)	137.61(116.28)	149.26(154.14)	181.68(185.33)
거주지역	서울	802(27.04)	688(25.60)	611(23.87)	578(23.61)
	경기	905(30.51)	856(31.85)	822(32.11)	799(32.64)
	광역시	596(20.09)	528(19.64)	512(20.00)	480(19.61)
	지방도시 및 군부	663(22.35)	616(22.92)	615(24.02)	591(24.14)
직업훈련 자 격 증 있 음	받 음	411(13.86)	407(15.14)	472(18.44)	524(21.41)
	있 음	660(22.25)	582(21.65)	585(22.85)	589(24.06)

<표 5> 시장임금 추정 표본 특성: 취업자 특성-빈도(%); 평균(SD)

		1999	2000	2001	2002
직 업	관리 및 전문직	195(12.68)	140(10.32)	149(11.10)	143(11.11)
	준전문직 및 기술직	151(9.82)	181(13.34)	180(13.41)	221(17.17)
	사무직	260(16.91)	259(19.09)	272(20.27)	275(21.37)
	판매 및 서비스직	496(32.25)	397(29.26)	392(29.21)	355(27.58)
	기능 및 노무직	436(28.35)	380(28.00)	349(26.01)	293(22.77)
종사상 지위	정규직 임금근로자	778(50.82)	781(57.55)	810(60.36)	888(69.00)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288(18.81)	246(18.13)	200(14.90)	217(16.86)
	자영자-피고용자 있음	64(4.18)	49(3.61)	58(4.32)	61(4.74)
	자영자-피고용자 없음	164(10.71)	137(10.10)	129(9.61)	120(9.32)
	무급가족종사자	237(15.48)	144(10.61)	145(10.80)	1(0.08)
경력년수	년	5.56(4.97)	5.99(4.79)	6.45(4.70)	5.89(4.17)
근로시간	시간제	1285(83.55)	194(14.30)	188(14.01)	161(12.51)
	전일제	253(16.45)	1163(85.70)	1154(85.99)	1126(87.49)
직업훈련 자 격 증 있 음	받 음	223(14.50)	225(16.58)	310(23.10)	352(27.35)
	있 음	375(24.38)	320(23.58)	337(25.11)	344(26.73)

나. 미취업자의 의중임금 추정

관찰되지 않은 미취업자의 의중임금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쉽지 않은데, 본 연구에서는 노동패널조사에서 “새로운 일자리(직장)에서의 수입은 적어도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의중임금으로 하였다. 노동패널조사에서 이러한 의중임금에 관한 질문은 1차 조사에서 구직자와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에, 2차 조사부터는 구직자에 국한하여 조사하여서 1차 조사에서 의중임금을 보고한 미취업자는 전체 미취업자의 25%, 2차 조사에서는 4.25%에 그치고 있고 이후부터는 더욱 줄어서 2002년 현재 20세 이상 45세 미만 비학생 여성 미취업자 가운데 의중임금을 나타낸 미취업자는 71명으로 전체 분석대상자의 3%에도 못 미친다. 따라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여성 미취업자의 의중임금을 추정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중임금을 추정하는데 조사자료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1998년의 1차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의중임금에 관한 자료가 구직자와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에 국한하여 존재하므로 추정 방법도 시장임금을 추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인 표본선택 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의중임금이 조사된 구직자와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자와 의중임금이 조사되지 않은 취업의사가 없는 미취업자의 두 집단으로 미취업자를 구분하여 프로빗 분석을 함으로써 의중임금 회귀분석에 사용될 표본선택항(inverse Mill's ratio)을 산출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의중임금을 보고한 집단의 의중임금 자료를 사용하여 의중임금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회귀계수를 적용하여 의중임금이 조사되지 않은 미취업자의 의중임금의 기댓값을 산출하여 이후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프로빗 분석에서는 구직을 하거나 일할 의사가 있는 집단을 1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한 이분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였고 표본선택 의중임금 회귀분석에서 구직자와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자의 의중임금의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하였다. 의중임금의 추정에 포함된 변수와 표본의 특성이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다. 여성의 미취업 상태의 결정요인 분석

미취업자의 시장임금과 의중임금의 추정값을 비교하여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큰 경우는 미취업 상태가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의 결과로 간주하여 자발적인 미취업으로(임의로) 명명하였고 그 반대의 경우는 미취업 상태가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에 반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임의로) 비자발적인 미취업으로 명명하였다.

미취업자는 경제활동인구인 구직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가운데에는 일거리나 직장이 있다면 일을 하고자 하지만 구직을 중단하거나 단념한 여성들과 일자리가 있더라도 일을 하지 않을 여성들이 혼재하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의사가 있는 실망실업자(또는 구직단념자)와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다시 구분된다.

<표 6> 의중임금 추정 표본 특성-빈도(%); 평균(SD)

		전 체	구직자 및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자	취업의사가 없는 미취업자
의중임금-평균(표준편차)		81.41 (48.33)	81.57 (48.25)	0.00 (0.00)
개인특성	연령-평균(표준편차)	38.54 (10.35)	37.47 (9.87)	39.37 (10.63)
학 력	중학교 미만	797 (32.93)	335 (31.94)	462 (33.70)
	고등학교 이하	1194 (49.34)	509 (48.52)	685 (49.96)
	전문대	168 (6.94)	95 (9.06)	73 (5.32)
	대학교 이상	261 (10.79)	110 (10.49)	151 (11.01)
전 공	인문과학	146 (34.19)	62 (29.95)	84 (38.18)
	사회과학	80 (18.74)	45 (21.74)	35 (15.91)
	이공계열	65 (15.22)	31 (14.98)	34 (15.45)
	의학계열	77 (18.03)	36 (17.39)	41 (18.64)
	예체능 및 기타 계열	23 (5.39)	15 (7.25)	8 (3.64)
	교육계열	36 (8.43)	18 (8.70)	18 (8.18)
결혼상태	미혼자	202 (8.35)	152 (14.49)	50 (3.65)
	기혼 유배우자	2090 (86.36)	827 (78.84)	1263 (92.12)
	기혼 무배우자	128 (5.29)	70 (6.67)	58 (4.23)
가족상황	가구원수-평균(표준편차)	3.98 (1.16)	3.98 (1.16)	3.98 (1.15)
	6세미만 자녀있음	822 (33.97)	258 (24.59)	564 (41.14)
	초등학생 자녀있음	609 (25.17)	289 (27.55)	320 (23.34)
	중고등학생 자녀있음	564 (23.31)	298 (28.41)	266 (19.40)
	(조)부모 혹은 (조)모친 동거	213 (8.80)	86 (8.20)	127 (9.26)
가계의 경제적 자 원 (만원)	가계소득-평균(표준편차)	167.82 (422.45)	160.73 (445.81)	173.25 (403.74)
	주택 가치-평균(표준편차)	6254.50 (7420.96)	5819.98 (6520.71)	6586.96 (8028.50)
	부채총액-평균(표준편차)	1151.36 (3832.23)	1290.65 (3550.82)	1044.78 (4032.34)
	경제적 어려움 있는 가계	1157 (47.81)	590 (56.24)	567 (41.36)
남 성 가장의 직 업	관리 및 전문직	153 (9.81)	42 (6.47)	111 (12.20)
	준전문직 및 기술직	249 (15.97)	108 (16.64)	141 (15.49)
	사무직	215 (13.79)	95 (14.64)	120 (13.19)
	판매 및 서비스직	192 (12.32)	83 (12.79)	109 (11.98)
	기능 및 노무직	750 (48.11)	321 (49.46)	429 (47.14)
남성가장의 종사상의 지 위	정규직 임금근로	1042 (59.41)	412 (56.98)	630 (61.11)
	비정규직 임금 근로	175 (9.98)	86 (11.89)	89 (8.63)
	자영자-종업원 있음	195 (11.12)	65 (8.99)	130 (12.61)
	자영자-종업원 없음	342 (19.50)	160 (22.13)	182 (17.65)
남 성 가장의 학 력	중학교 미만	600 (26.87)	280 (29.79)	320 (24.75)
	고등학교 이하	942 (42.19)	399 (42.45)	543 (42.00)
	전문대	148 (6.63)	69 (7.34)	79 (6.11)
	대학교 이상	543 (24.32)	192 (20.43)	351 (27.15)

<표 6> 의중임금 추정 표본특성-빈도(%); 평균(SD)-계속

		전체	구직자 및 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자	취업의사가 없는 미취업자
거주지역	서울	674 (27.85)	286 (27.26)	388 (28.30)
	경기	798 (32.98)	347 (33.08)	451 (32.90)
	광역시	415 (17.15)	172 (16.40)	243 (17.72)
	지방도시 및 군부	533 (22.02)	244 (23.26)	289 (21.08)
희망근로 시간	시간제	-	563 (59.03)	-
	전일제	-	372 (40.97)	-
취업경험	있음	1877 (77.56)	908 (86.56)	969 (70.68)
이전 직업	관리 및 전문직	77 (4.10)	29 (3.19)	48 (4.95)
	준전문직 및 기술직	195 (10.39)	100 (11.01)	95 (9.80)
	사무직	531 (28.29)	205 (22.58)	326 (33.64)
	판매 및 서비스직	433 (23.07)	257 (28.30)	176 (18.16)
	기능 및 노무직	427 (22.75)	214 (23.57)	213 (21.98)
	기타	214 (11.40)	103 (11.34)	111 (11.46)
이전 직업	정규직 임금근로자	1283 (68.35)	563 (62.00)	720 (74.30)
	정규직 임금 근로자	372 (19.82)	236 (25.99)	136 (14.04)
종사상의 지 위	자영자-피고용자 있음	62 (3.30)	31 (3.41)	31 (3.20)
	자영자-피고용자 없음	86 (4.58)	45 (4.96)	41 (4.23)
	무급가족종사자	73 (3.89)	32 (3.52)	41 (4.23)
경력연수-평균(표준편차)		6.15 (5.33)	6.30 (5.34)	6.01 (5.31)
이전 직업 임금 및 보수-평균(표준편차) (만원)		58.39 (148.17)	56.29 (47.39)	60.36 (201.09)

구직자의 판별 기준이 조사 당시 지난 1주일 혹은 지난 1개월 동안 구직여부이어서 취업의사가 있으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많은 수의 여성들이 비경제활동인구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데 취업의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구직자와 미취업 상태가 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취업여성을 구직자와 비경제활동상태이지만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를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로서 한 범주로 하고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미취업자를 다른 한 범주로 하여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미취업 상태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다시 다음과 같은 네 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취업의사가 있는 자발적인 미취업자, (2)취업의사가 없는 자발적인 미취업자, (3)취업의사가 있는 비자발적인 미취업자, (4)취업의사가 없는 비자발적인 미취업자.

이러한 미취업 상태가 미취업 여성의 개인 특성 및 가계특성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범주로지분분석(multinomial logit analysis)을 적용하였다. 다범주로지분분석에 대해 아직까지 패널자료 분석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 않아서 최근 자료인 2002년 5차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변수와 표본의 특성은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7> 취업의사유무 및 자발적/비자발 상태별 표본특성-빈도(%); 평균(SD)

		자발적/취업 의사 없음	비자발적/취업의 사없음	자발적/취업 의사있음	비자발적/취업의 사있음
표 본 수		561	314	118	108
학 력	중학교 미만	74 (13.19)	35 (11.15)	21 (17.80)	8 (7.41)
	고등학교	339 (60.43)	175 (55.73)	60 (50.85)	61 (56.48)
	전문대	84 (14.97)	34 (10.83)	25 (21.19)	21 (19.44)
	대학교 이상	64 (11.41)	70 (22.29)	12 (10.17)	18 (16.67)
전 공 (전문대 및 대학 이상)	인문과학	41 (31.06)	33 (34.74)	11 (31.43)	12 (36.36)
	사회과학	11 (8.33)	19 (20.00)	2 (5.71)	9 (27.27)
	이공계열	26 (19.70)	35 (36.84)	3 (8.57)	10 (30.30)
	예체능 및 기타 계열	34 (25.76)	3 (3.16)	11 (31.43)	-
	의학계열	9 (6.82)	4 (4.21)	3 (8.57)	1 (3.03)
	교육계열	11 (8.33)	1 (1.05)	5 (14.29)	1 (3.03)
연 령	세	33.6 (6.3)	33.2 (6.1)	33.7 (7.1)	30.9 (7.4)
거주지역	서울	123 (21.93)	76 (24.20)	20 (16.95)	21 (19.44)
	경기	184 (32.80)	82 (26.11)	55 (46.61)	35 (32.41)
	광역시	111 (19.79)	69 (21.97)	22 (18.64)	21 (19.44)
	지방도시 및 군부	143 (25.49)	87 (27.21)	21 (17.80)	31 (28.70)
결혼상태	미혼자	42 (7.49)	48 (15.29)	25 (21.19)	47 (43.52)
	기혼 유배우자	510 (90.91)	264 (84.08)	89 (75.42)	60 (55.56)
	기혼 무배우자	9 (1.60)	2 (0.64)	4 (3.39)	1 (0.93)
가구원수	명	3.9 (1.0)	4.0 (1.1)	3.8 (1.0)	4.2 (1.1)
중고등학생 자녀	있음	122 (21.75)	68 (21.66)	28 (23.73)	26 (24.07)
초등학생 자녀	있음	156 (27.81)	160 (50.96)	23 (19.49)	45 (41.67)
6세미만 자녀	있음	295 (52.58)	132 (42.04)	33 (27.97)	23 (21.30)
(조) 부모/모친동거	동거함	16 (2.85)	32 (10.19)	8 (6.78)	9 (8.33)
가계소득	만원	241.1 (228.1)	200.5 (185.6)	197.1 (110.1)	165.0 (130.8)
순 자 산	만원	12589 (18286)	10012 (13325)	6431 (25131)	8690 (11086)
경제적 어려움	있음	274 (48.84)	178 (56.69)	65 (55.08)	68 (62.96)
자격증 있음	있음	96 (17.11)	89 (28.34)	17 (14.41)	32 (29.63)
직업훈련 받음	있음	52 (9.27)	65 (20.70)	16 (13.56)	29 (26.85)
직장경력	있음	456 (81.28)	266 (84.71)	102 (86.44)	84 (77.78)
전 직업	관리 및 전문직	33 (7.76)	7 (2.87)	6 (6.00)	1 (1.32)
	준전문직 및 기술직	66 (15.53)	12 (4.92)	18 (18.00)	2 (2.63)
	사무직	118 (27.76)	126 (51.64)	18 (18.00)	44 (57.89)
	판매 및 서비스직	139 (32.71)	34 (13.93)	39 (39.00)	11 (14.47)
	기능 및 노무직	69(16.24)	65 (26.64)	19 (19.00)	18 (23.68)
전 직업 종사상 지위	비규직 임금근로자	286 (62.86)	209 (78.57)	53 (51.96)	61 (72.62)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107 (23.52)	32 (12.03)	33 (32.35)	15 (17.86)
	자영자-피고용자 있음	13 (2.86)	3 (1.13)	3 (2.94)	1 (1.19)
	자영자-피고용자 없음	27 (5.93)	5 (1.88)	12 (11.76)	2 (2.38)
	무급가족종사자	22 (4.84)	17 (6.39)	1 (0.98)	5 (5.95)
전직장 임금/보수	만원	61.7 (58.2)	57.9 (43.6)	67.1 (38.1)	63.5 (36.7)
남성 가장의 직업	관리 및 전문직	46 (8.95)	28 (9.76)	6 (5.71)	5 (5.56)
	준전문직 및 기술직	78 (15.18)	55 (19.16)	12 (11.43)	7 (7.78)
	사무직	68 (13.23)	23 (8.01)	8 (7.62)	4 (4.44)
	판매 및 서비스직	72 (14.01)	23 (8.01)	10 (9.52)	15 (16.67)
	기능 및 노무직	218 (42.41)	129 (44.95)	57 (54.29)	43 (47.78)
	기 타	32 (6.23)	29 (10.10)	12 (11.43)	16 (17.78)
남성 가장 종사상 지위	정규직 임금근로자	-	-	-	-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	-	-	-
	자영자-피고용자 있음	-	-	-	-
	자영자-피고용자 없음	-	-	-	-
남성 가장 학력	중학교 이하	85 (16.19)	43 (14.93)	24 (22.43)	20 (22.22)
	고등학교 이하	242 (46.10)	126 (43.75)	45 (42.06)	43 (47.78)
	전문대	58 (11.05)	32 (11.11)	13 (12.15)	9 (10.00)
	대학교 이상	140 (26.67)	87 (30.21)	25 (23.36)	18 (20.00)

IV. 분석결과

1. 여성의 취업 및 미취업 현황 및 추이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2년 현재 정규교육을 마친 20세 이상 45세 미만 여성 중 취업자가 56%, 미취업자가 44%로 나타났다. 미취업자의 대다수(약 79%)는 취업의사가 없는 미취업자들이다. 취업대기 상태에 있는 구직자와 구직활동을 하지 않지만 일할 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 여성을 모두 고려하면 활발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20-44세 연령대 여성의 실질적인 실업율은 2002년 현재 9%대에 달하여 공식적인 경제활동통계에 나타난 결과, 약 1.4%(통계청, 2003)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8>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빈도(%)

	1998	1999	2000	2001	2002
구직자	345(9.78)	131(4.25)	94(3.38)	73(2.74)	71(2.82)
비경제활동-취업의사 있음	531(15.06)	212(6.89)	222(7.98)	223(8.36)	161(6.40)
비경제활동-취업의사 없음	986(27.96)	1142(37.09)	1016(36.53)	930(34.90)	863(34.31)
취업자	1664(47.19)	1594(51.77)	1449(52.10)	1439(54.00)	1420(56.46)
전체	3526(100.00)	3079(100.00)	2781(100.00)	2665(100.00)	2515(100.00)

지난 4년 동안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경제위기의 타격이 심각하게 나타났던 1998년에는 취업자의 비중이 낮고 또한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여성의 비중도 낮은 반면 구직자와 구직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일을 하고자 하는 여성의 비중이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후부터 2002년까지는 취업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구직자와 취업의사가 없는 미취업자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의 비중은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부표 1-8>는 각 년도에 각각의 경제활동 상태가 이전 년도에는 어떤 상태에서 변화된 것이고 이후에는 어떤 상태로 이동하는지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연수가 증가할수록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조사 헛수가 거듭됨에 따라 표본으로부터 탈락한 사례수가 늘어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비율의 변화를 중심으로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직자의 대다수는 이전에 취업자였거나 취업의사가 없는 미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구직자의 약 10% 정도는 과거에도 구직상태에 있어서 실업상태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1). 1999년 이후 구직자의 다음 년도 취업률은 증가하는 경향이지만 취업률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부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2년 현재 전년도 구직자의 약 41%는 취업에 성

공하였지만 23%는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자, 나머지 약 20%는 구직활동을 지속하거나 취업의사는 있지만 구직을 중단한 상태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구직자 중 취업한 사람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 여성은 전년도에 취업의사가 없는 완전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취업의사가 있으나 구직을 하지 않은 상태를 지속한 경우이다. 전년도 이전의 상태를 보면 취업자였던 경우가 보다 많이 나타난다. 이후의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를 보면 4분의 1 정도는 다음 연도에 취업으로 이동하였고 약 절반 정도는 완전비경제활동상태로, 그리고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장기의 추이를 보면 취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여성의 70% 이상은 전년도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나 과거 2년 혹은 3년 전에는 취업상태였거나 구직 또는 취업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비율이 전년도보다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5년간 계속 조사된 완전비경제활동 여성 중에 3-4년 전에 취업자였던 여성은 4분의 1에 달한다. 역으로 1998년 현재 완전비경제활동 여성 가운데 2002년 까지 표본에 남아있는 여성의 약 29%는 취업상태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에 전년도 계속 취업자는 약 74%에 그치고 나머지 약 26%는 전년도에 미취업자여서 경제위기 이후 일부 여성 취업자가 노동시장을 떠난 한편 새로운 여성 취업자가 노동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취업여성의 대다수는 1년 이상의 장기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부터 취업자의 약 80%(표본탈락자 및 신규 표본진입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수치임)이상이 다음 연도에도 취업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해가 거듭됨에 따라 취업에서 이탈하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지만 전년도 취업유지 비율은 1998년 취업자 기준으로 4년 후에도 75%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에서 이탈한 여성은 취업의사가 없는 완전 비경제활동상태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9-10>에 취업의사가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와 취업의사가 없는 여성이 취업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나타나 있다. 비구직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응답자의 약 3분의 1은 일자리가 없다고 여기거나 포기한 경우였고 다른 3분의 1은 자녀 양육과 가사일로 인해 구직을 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실망실업자와 구직을 연기한 미취업자가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여성의 절반 이상이 그 이유가 자녀 양육이었고 25% 이상이 가사일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상의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의 변화 추이를 정리하면 경제위기 직후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이 증가하였고 이후에 구직자와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의 비율은 늘어나지 않았고 감소하였으며 이들이 취업하면서 여성의 취업률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상태와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 상태는 단기적으로 지속되는 상태인 반면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과 취업상태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추이를 보면 취업자가 비경제활동 상태로,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취업상태로 이동하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취업자가 비경제활동 상태로 보다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취업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9>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자의 비 구직 이유-빈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서	122(22.60)	41(19.34)	64(28.96)	39(18.84)	8(5.67)
원하는 임금수준 또는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	-	-	-	28(19.86)
근처에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서	-	-	-	-	3(2.13)
일 자리를 찾을 수 없어 포기함	92(17.33)	37(17.45)	42(19.00)	39(18.84)	8(5.67)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하여	21(3.95)	5(2.36)	4(1.81)	4(1.86)	2(1.42)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때문에	11(2.07)	1(0.47)	4(1.81)	3(1.40)	1(0.71)
구직결과를 기다림	5 (0.94)	2(0.94)	4(1.81)	9(4.19)	-
어린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128(24.11)	59(27.83)	49(22.17)	38(17.67)	32(22.70)
가사일 때문에	65(12.24)	36(16.98)	16(7.24)	38(17.67)	16(11.35)
건강상 이유로	33(6.21)	8 (3.77)	13(5.88)	18(8.37)	7(4.96)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	-	-	-	26(18.44)
기타	103(10.55)	23(10.85)	25(11.31)	27(12.56)	10(7.09)
전체	531(100.00)	212(100.00)	221(100.00)	215(100.00)	141(100.00)

<표 10>취업의사가 없는 미취업자의 비취업 이유-빈도(%)

	1998	1999	2000	2001	2002
학업 때문에	16(1.62)	29(2.54)	24(2.26)	39(3.87)	12(1.21)
아이를 키우는 일 때문에	579(58.72)	509(44.57)	533(50.24)	524(51.98)	517(52.12)
가사일 때문에	230(23.33)	401(35.11)	297(27.99)	288(28.57)	273(27.52)
퇴직하여서	2(0.20)	3(0.26)	2(0.19)	-	-
나이가 많아서	-	-	90(8.48)	2(0.20)	-
건강문제로	90(9.13)	89(7.79)	61(5.75)	46(4.56)	61(6.15)
당분간 쉬고 싶어서	20(2.03)	36(3.15)	53(5.00)	64(6.35)	53(5.34)
기 타	49(4.97)	75(6.57)	1(0.09)	45(4.46)	76(7.66)
전 체	986(100.00)	1142(100.00)	1061(100.00)	1008(100.00)	992(100.0)

달리 표현하면 취업자가 취업상태에 머무르는 경향이 미취업자가 미취업상태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향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성의 약 절반 이상이 취업자이고 약 절반 정도는 미취업자이며 취업자의 70% 이상이 장기적으로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미취업 여성의 약 60% 이상이 장기적으로 같은 상태를 유지하지만 이들 가운데 나머지 약 30%와 약 40%, 즉 전체 여성의 약 3분의 1은 경제활동 상태가 취업과 미취업 상태로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이다. 마지막으로 미취업자의 미취업의 주된 이유는 자녀양육과 가사일로 나타났다.

2. 의중임금과 시장임금 추정 결과

의중임금 회귀모형 추정 결과가 <표 11>에, 시장임금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회귀모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추정회귀계수에 여성 개인의 특성과 가계특성을 대입하여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을 추정결과는 <표 13-1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추정된 의중임금 회귀모형으로부터 산출한 의중임금은 구직자 및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의 경우 월 평균 87만원으로 추정되어 실제 관측값 85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³⁾. 취업의사가 없는 미취업자의 의중임금은 이보다 낮아서 약 83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임금회귀모형에 의해 산출된 임금 추정값과 실제 관측값을 비교하면 추정값은 연도에 따른 변동을 오차항을 통하여 통제하였기 때문에 관측값에 비해 연도에 따른 변동이 적게 나타났다. 2001년까지 미취업자의 임금 추정값이 취업자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이 저학력자를 중심으로 저기능, 저임금 직종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는 지적(최강식 외, 1997); 김영옥, 1999; 금재호, 2000)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는 줄어들었고 2002년에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여성 취업률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본의 특성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의 학력이 점차로 높아져서 고학력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는 한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취업자의 경력년수가 증가한 데에 기인한 것 같다. 또한 자격증 보유자와 직업훈련을 받은 여성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여성의 취업을 증가시키고 취업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취업자에 대한 시장임금의 추정값이 연도에 따라 급격한 변동을 나타내지 않고 안정적으로 나타나 1998년 자료로 산출한 의중임금과의 비교하는데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분석을 계속 진행하였다.

3) 추정값은 희망근로시간을 전일제로 하여 산출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에 관측값보다 높게 나타나게 됨

<표 11> 미취업여성의 의중임금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Sample Selection)-회귀계수(SE)

		구직 또는 취업의사 유무에 대한 프로빗분석	의중임금 회귀분석
상 수 항		-1.00 (0.55)*	2.80 (0.28)***
학 력 중학교 미만	고등학교 이하	0.27E-1 (0.83E-1)	0.37E-1 (0.39E-1)
	전문대	-1.03 (0.61)*	-
	대학교 이상	-1.20 (0.61)**	-
전공 (전문대 및 대학 이상)	인문과학	1.39 (0.61)**	0.18 (0.74E-1)**
	사회과학	1.46 (0.62)**	0.13 (0.81E-1)*
	이공계열	1.35 (0.62)**	0.14 (0.88E-1)
	의학계열	1.81 (0.67) ^{vy}	0.23 (0.13)*
	예체능 및 기타 계열	1.39 (0.63)**	0.29 (0.88E-1)***
	교육계열	1.45 (0.65)**	0.31 (0.11)**
연 령	세	0.48E-1 (0.29E-1)*	0.76E-1 (0.14E-1)***
연령제곱	세	-0.77E-3 (0.35E-1)**	-0.10E-2 (0.17E-3)***
거주지역 지방도시 및 군부	서울	-0.64E-1 (0.80E-1)	0.12 (0.38E-1)***
	경기	-0.13 (0.89E-1)	0.54E-1 (0.42E-1)
	광역시	-0.10 (0.76E-1)	0.23E-2 (0.35E-1)
결혼상태	기혼 유배우자	-0.64 (0.15)**	-0.92E-1 (0.71E-1)
미혼자	기혼 무배우자	-0.33 (0.20)*	-0.51E-1 (0.85E-1)
가구원수	명	0.27E-1 (0.29E-1)	-0.85E-2 (0.13E-1)
중고등학생 자녀	있음	0.12 (0.78E-1)*	-0.19E-1 (0.35E-1)
초등학생 자녀	있음	0.53E-1 (0.71E-1)	-0.11 (0.34E-1)***
6세미만 자녀	있음	-0.58 (0.84E-1)**	-0.90E-1 (0.49E-1)***
(조) 부모/모친동거		-0.96E-1 (0.10)	-0.11 (0.50E-1)**
가계소득	log(소득)	-0.18E-1 (0.23E-1)	-0.20E-4 (0.29E-4)
부채총액	log(부채)	0.36E-1 (0.76E-2)***	0.11E-4 (0.38E-5)***
주택 가치	log(주택가치)	0.24E-1 (0.11E-1)**	0.45E-5 (0.22E-5)**
경제적 어려움	있음	0.35 (0.58)***	-
직장경력	있음	0.73 (0.12)***	-
희망근로시간	전일제	-	0.57E-1 (0.28E-1)*
전직장 임금/보수	만원	-	0.88E-3 (0.31E-1)***
전 직업	관리 및 전문직	-	0.30 (0.93E-1)*
	준전문직 및 기술직	-	0.18 (0.59E-1)**
	사무직	-	0.77E-1 (0.47E-1)
	판매 및 서비스직	-	0.15 (0.44E-1)**
	기능 및 노무직	-	0.33E-1 (0.47E-1)
전 직업 종사상 지위	정규직 임금근로자	-0.18 (0.11)	-0.93E-1 (0.42E-1)**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0.25 (0.12)**	-0.54E-1 (0.54E-1)
	자영자-피고용자 있음	-0.39E-1 (0.20)	0.13 (0.89E-1)
남 성 가장의 직업	관리 및 전문직	-0.30 (0.15)**	0.10 (0.79E-1)
	준전문직 및 기술직	0.11 (0.11)	0.72E-2 (0.53E-1)
	사무직	0.10(0.12)	0.12 (0.58E-1)**
	판매 및 서비스직	0.78E-1 (0.11)	-0.88E-1 (0.53E-1)*
	기능 및 노무직	-0.36E-1 (0.82E-1)	-0.28E-1 (0.39E-1)
남성 가장 종사상 지위	정규직 임금근로자	-0.57E-1 (0.80E-1)	-0.80E-1 (0.38E-1)**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0.13 (0.12)	-0.61E-1 (0.56E-1)
	자영자-피고용자 있음	-0.33 (0.12)***	-1.00E-1 (0.64E-1)
남성 가장 학력	고등학교 이하	0.17E-1 (0.79E-1)	0.27E-1 (0.36E-1)
	전문대	0.19 (0.14)	-0.15E-1 (0.63E-1)
	대학교 이상	-0.13 (0.11)	0.22E-1 (0.55E-1)
Lamda		-	0.14 (0.82E-1)*
모델테스트		Log likelihood -1424.18 $\chi^2=463.49$ ***	F=5.68*** R ² =20.32%

* P<0.1, ** P<0.05, *** P<0.01

<표 12> 시장임금 추정 회귀분석 결과(Sample Selection)-회귀계수(SE)

		취업여부 프로빗 분석	시장임금 회귀분석
상 수		0.53 (0.88)	3.77 (0.28)***
연 령		0.11 (0.54E-1)**	-0.96E-2 (0.18E-1)
연령 제곱		-0.11E-2 (0.80E-3)	0.23E-3 (0.26E-3)
학 령 vs 중학교 미만	고등학교 이하	-0.57 (0.99E-1)***	0.16 (0.41E-1)**
	전문대	-	0.19 (0.69E-1)***
	대학교 이상	-	0.34 (0.68E-1)***
전 공 (전문대 및 대학이상)	인문과학	-0.20 (0.13)	0.63E-1 (0.50E-1)
	사회과학	-0.71E-1 (0.16)	0.15E-1 (0.56E-1)
	이공계열	-0.17 (0.16)	0.39E-1 (0.53E-1)
	의학계열	0.81 (0.25)***	0.15 (0.72E-1)**
	예체능계열	-0.63E-1 (0.17)	0.12E-1 (0.57E-1)
	교육계열	0.28 (0.20)	-0.15E-1 (0.61E-1)
결혼상태 vs 미혼자	기혼 유배우자	-1.20 (0.12)***	0.14 (0.41E-1)***
	기혼 무배우자	-1.16 (0.21)***	-0.70 (0.61E-1)
가족상황	가구원수	0.68E-1 (0.31E-1)***	-
	중고등학생 자녀있음	0.27 (0.71E-1)***	-
	초등학생 자녀있음	-0.98E-1 (0.74E-1)	-
	6세 미만 자녀 있음	-0.68 (0.75E-1)***	-
	(조)부모/모친 동거	0.40 (0.13)***	-
가족소득	본인소득제외	-0.38 (0.16E-1)***	-
거주지역 vs 지방도시 및 군부	서울	-0.63E-1 (0.11)	0.13 (0.41E-1)***
	경기	0.16E-1 (0.11)*	0.88E-1 (0.44E-1)**
	광역시	-0.16 (0.10)	0.54E-2 (0.39E-1)
직업훈련	받음	-	0.70E-1 (0.26E-1)***
자 격 증	있음	-	0.64E-1 (0.34E-1)*
직 업 vs 판매 및 서비스직	관리 및 전문직	-	0.13E-1 (0.42E-1)
	준전문직 및 기술직	-	0.48E-1 (0.36E-1)
	사무직	-	0.47E-1 (0.34E-1)
	기능 및 노무직	-	-0.23 (0.29E-1)***
종사상 지위 vs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정규직 임금근로자	-	0.26 (0.23E-1)***
	자영자-피고용자 있음	-	0.52 (0.47E-1)***
	자영자-피고용자 없음	-	0.24 (0.37E-1)***
경력년수	년	-	0.42E-1 (0.78E-2)***
경력연수제곱		-	-0.12E-2 (0.39E-3)***
근로시간	전일제	-	0.62E-1 (0.16E-1)***
연도 vs 1999	2000	0.80E-2 (0.58E-1)	
	2001	0.91E-1 (0.55E-1)**	
	2002	0.24 (0.54E-1)***	
Rho		0.79 (0.11E-1)***	
Lambda			-0.22 (0.22E-1)***
Var(e)			0.88D-1
Var(c)			0.45
Var(v)			0.10D-1
모델테스트	Log likelihood	-5282.30	F=76.21***
	χ^2	-2468.14***	R ² =33.72%

* P<0.1, ** P<0.05, *** P<0.01

<표 13> 의중임금 관측값과 추정값

평균(SD)

단위: 만원-2000년 기준 화폐가치	관측값	추정값 ¹⁾
구직자 및 취업의사 있는 미취업자	85(50)	87(20)
취업의사 없는 미취업자	-	83(21)
전체	85(50)	85(20)

1) 추정값은 희망근로시간을 전일제로 하여 산출함

<표 14> 시장임금 관측값과 추정값

평균(SD)

단위:만원-2000년 기준 화폐가치	1999	2000	2001	2002
취업자-관측값	68(54)	74(65)	87(81)	101(74)
취업자-추정값	74(23)	79(24)	83(25)	87(25)
미취업자-추정값	84(17)	84(17)	85(17)	86(17)
전체-추정값	79(21)	82(21)	84(21)	86(21)

미취업 상태별로 산출된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이 <표 15>에 나타나 있다. 의중임금의 추정값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우 완만히 증가한 반면 구직자를 중심으로 관찰되고 있는 의중임금은 2001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관측값과 추정값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관측값의 관찰 사례수가 매우 적고 관측값의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특히 2002년) 관측값을 근거로 미취업자의 실제 의중임금이 2001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했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더욱이 2001년과 2002년에 의중임금 평균값에서 두드러진 증가를 유발할 만한 급격한 사회경제적인 충격이 있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추정값이 전체 미취업 여성의 의중임금의 고찰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취업 여성의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을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미취업은 가계생산과 시장노동의 시간배분에 대한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의 결과임을 시사한다. 구직 및 취업의사 유무별로 미취업 상태를 구분하여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을 살펴보면 구직자의 경우 전체적인 경향과 다른 양상이 발견되고 있다. 구직자는 2000년 이후부터 시장임금이 의중임금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흥미 있는 결과는 의중임금은 다른 미취업자에 비해 낮은 반면 시장임금은 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직을 하지 않은 미취업 여성은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게 추정되었는데 취업의사가 없는 경우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의 차이가 보다 크게 나타났다.

다음은 추정된 시장임금과 의중임금을 비교하여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큰 경우를 자발적 미취업으로 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비자발적 미취업으로 하여 이 두 집단의 규모를 보면(표 16) 자발적 미취업자는 약 60%, 비자발적 미취업자가 약 40% 정도로 나타났다.

<표 15 > 미취업 상태별 의중임금과 시장임금 추정값¹⁾

단위: 만원-평균(SD)

구분	전체	구직자	비경제활동 -취업의사 있음	비경제활동 -취업의사 없음
1998				
표본수	1434	280	423	731
의중임금-관측값	85(50)	81(42)	87(54)	-
의중임금-추정값	85(20)	86(19)	87(20)	83(21)
시장임금-추정값	-	-	-	-
1999				
표본수	1299	113	183	1003
의중임금-관측값	83(54)	83(54)	-	-
의중임금-추정값	89(22)	84(17)	89(18)	90(22)
시장임금-추정값	84(16)	84(17)	84(15)	84(17)
2000				
표본수	1220	83	208	929
의중임금-관측값	89(62)	89(62)	-	-
의중임금-추정값	89(20)	85(17)	89(17)	89(22)
시장임금-추정값	84(17)	86(18)	85(15)	84(17)
2001				
표본수	1138	67	199	872
의중임금-관측값	94(84)	94(84)	-	-
의중임금-추정값	90(24)	86(21)	90(24)	90(25)
시장임금-추정값	85(17)	87(18)	86(15)	84(17)
2002				
표본수	1117	69	160	888
의중임금-관측값	126(213)	139(213)	-	-
의중임금-추정값	91(23)	89(21)	91(23)	91(24)
시장임금-추정값	86(17)	90(17)	86(17)	85(17)

1) 2000년 기준 물가지수로 조정함

<표 16> 연도별 자발적 미취업자와 비자발적 미취업자-빈도(%)

구분	1999	2000	2001	2002
자발적	803(61.82)	758(62.13)	707(62.13)	679(61.67)
비자발적	496(38.18)	762(37.87)	431(37.87)	422(38.33)
전체	1299(100)	1220(100)	1138(100)	1101(100)

<표 17> 자발적 미취업자와 비자발적 미취업자의 구직 및 취업의사 여부에 따른 미취업 여성 분포-빈도(%)

연도	전체	자발적/취업의사	비자발적/취업의	자발적/취업의사	비자발적/취업의
		없음	사 없음	있음	사 있음
1999	1299(100)	639(49.19)	364(28.02)	164(12.63)	132(10.16)
2000	1220(100)	607(49.75)	322(26.39)	151(12.38)	140(11.48)
2001	1138(100)	564(49.56)	308(27.07)	143(12.57)	123(10.81)
2002	1101(100)	561(50.95)	314(28.52)	118(10.72)	108(9.81)

자발적 미취업자와 비자발적 미취업자를 구직자와 취업할 의사가 있는 미취업자와 일자리가 있더라도 취업하지 않을 미취업자로 다시 구분하여 미취업 여성을 네 유형으로 범주화하였다(표 17). 미취업 여성의 절반 정도는 의중임금이 기대시장임금보다 큰 자발적 미취업자이면서 취업의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은 의중임금보다 시장임금이 높은 비자발적 미취업자이거나 취업할 의사가 있어서 노동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미취업자들이다. 기대시장임금이 의중임금보다 높고 취업의사가 있어서 노동 시장 진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여성은 10% 내외로 나타났다. 기대시장임금이 의중임금보다 높지만 취업할 의사가 없는 여성은 전체 미취업 여성의 30%에 육박한다. 의중임금이 기대 시장임금보다 높지만 취업할 의사가 있는 여성도 10% 내외에 달한다.

여성의 노동력 활용을 위해서는 취업의사가 있는 약 20% 내외의 미취업여성에게 적절한 일자리의 제공이, 취업의사가 없는 비자발적 미취업여성에게 여성 노동시장 여건 개선을 통하여 취업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우선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러한 네 가지 미취업 유형과 관련된 개인 및 가계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5. 여성의 미취업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네 유형의 미취업 상태와 관련된 여성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자발적이며 취업의사가 없는 여성 집단을 기준으로 multinomial logit 분석을 한 결과가 <표 18>에 나타나 있다.

학력의 효과를 살펴보면 중학교 학력의 미취업 여성에 비해 고등학교나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미취업 여성은 비자발적 미취업자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 특히 전문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여성은 중학교 이하 학력 여성에 비해 비자발적/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 이상 학력자의 전공도 미취업 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 이공계열, 의학계열 전공자는 비자발적/취업의사 없는 미취업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교육계열 전공자는 자발적/취업의사 있는 미취업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내어 교육계열 전공자는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지만 취업의사가 있는 경우가 보다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인문과학 전공은 여성의 미취업 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라 미취업 상태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여성은 지방 도시 거주자에 비해 의중임금이 기대 시장임금보다 높지만 취업하고자 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자발적/비자발적 미취업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 기혼여성은 미혼여성에 비해 미취업이 자발적일 가능성이 보다 높다.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여성은 취업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인 미취업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 반면 영유아 자녀가 있는 여성은 미취업이 자발적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고 취업의사를 가질 가능성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조)

<표 18>취업의사 및 자발적 및 비자발적 미취업 상태에 관한 로짓분석 결과
(vs. 자발적/취업의사 없음)-회귀계수(SE)

		비자발적/취업의사없음	자발적/취업의사있음	비자발적/취업의사있음
상수		9.05 (3.23)***	0.78 (3.49)	14.75 (4.15)***
학력	고등학교	0.74 (0.35)**	0.22 (0.28)	1.34 (0.52)***
	전문대	0.69 (0.66)	0.13 (0.79)	2.45 (0.88)***
	대학교 이상	3.34 (0.68)***	-0.52(0.85)	4.17 (0.93)***
전공 (전문대 및 대학 이상)	인문과학	0.15 (0.59)	0.85 (0.75)	-0.78E-1 (0.77)
	사회과학	1.52 (0.70)**	0.70 (1.02)	1.43 (0.89)
	이공계열	1.34 (0.61)**	-0.11 (0.92)	0.45E-1 (0.82)
	예체능 및 기타 계열	-2.83 (0.92)***	0.64 (0.78)	-33.35 (1045271.8)
	의학계열	1.43 (0.96)	1.49 (1.03)	0.54 (1.51)
	교육계열	-2.66 (1.37)**	1.54 (0.92)*	-2.16 (1.62)
연령	세	-0.36 (0.20)*	-0.37E-1 (0.21)	-0.76 (0.26)***
연령제곱	세	0.51E-2 (0.30E-2)*	0.66E-3 (0.31E-2)	0.11E-1(0.40E-2)***
거주지역 지방도시 및 군부	서울	0.24 (0.28)	-0.36E-1 (0.26)	-0.22 (0.42)
	경기	0.38 (0.28)	0.48 (0.36)	0.52 (0.40)
	광역시	-0.34 (0.26)	0.68 (0.30)**	-0.19 (0.36)
결혼상태	기혼 유배우자	-1.24 (0.45)***	-0.75 (0.50)	-2.50 (0.60)***
	미혼자	-4.58 (1.25)***	-0.74 (0.88)	-4.31 (1.46)***
가구원수	명	-0.19E-1 (0.12)	-0.28E-1 (0.13)	0.16 (0.16)
중고등학생 자녀	있음	0.95E-1 (0.31)	-0.85E-1 (0.33)	0.69 (0.43)
초등학생 자녀	있음	2.17 (0.27)***	-0.45 (0.33)	2.59 (0.40)***
6세미만 자녀	있음	-0.67 (0.27)**	-0.97 (0.36)***	-1.05 (0.42)***
(조) 부모/모친동거		2.57 (0.47)***	0.97 (0.53)*	1.91 (0.63)***
가계소득	log(소득)	-1.09 (0.14)***	-0.36 (0.16)**	-1.19 (0.16)***
순자산	log(순자산)	0.34E-1 (0.41E-1)	-0.15E-1 (0.43E-1)	-0.24E-1 (0.54E-1)
경제적 어려움	있음	0.42 (0.20)**	0.22 (0.22)	0.66 (0.33)**
자격증 있음		1.16 (0.24)***	-0.35 (0.34)	1.46 (0.38)***
직업훈련 받음		1.89 (0.30)***	0.34 (0.35)	2.51 (0.27)***
전 직업	관리 및 전문직	-3.82 (0.75)***	-0.41 (0.69)	-6.09 (1.40)***
	준전문직 및 기술직	-3.02 (0.54)***	0.86E-2 (0.54)	-4.50 (0.98)***
	사무직	0.71 (0.33)**	0.16E-1 (0.48)	0.30 (0.50)
	판매 및 서비스직	-1.34 (0.38)***	-0.29E-1 (0.44)	-2.49 (0.60)***
	기능 및 노무직	1.30 (0.35)***	0.52 (0.48)	0.74 (0.53)
전 직업 종사상 지위	정규직 임금근로자	0.96 (0.48)**	-0.92 (0.41)**	0.21E-1 (0.70)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1.00 (0.52)**	-0.46 (0.42)	-1.45 (0.74)**
	자영자-피고용자 있음	-0.99 (1.29)	-0.37 (0.80)	-1.01 (1.62)
전직장 임금/보수	만원	-0.26E-1 (0.12)	0.31 (0.11)***	0.35 (0.17)**
남성 가장의 직업	관리 및 전문직	0.48 (0.49)	-0.47 (0.62)	-0.17 (0.73)
	준전문직 및 기술직	0.88E-1 (0.42)	-0.41 (0.49)	-1.11 (0.65)*
	사무직	-1.34 (0.48)***	-0.76 (0.55)	-2.11 (0.74)***
	판매 및 서비스직	-0.63 (0.44)	-0.44 (0.48)	-0.18 (0.56)
	기능 및 노무직	0.52 (0.32)	0.27 (0.35)	-0.27 (0.42)
남성 가장 학력	고등학교 이하	-0.30E-1 (0.29)	0.23 (0.33)	0.20 (0.39)
	전문대	0.47 (0.42)	0.63 (0.48)	0.87 (0.60)
	대학교 이상	0.45E-1 (0.39)	0.64 (0.44)	0.27 (0.56)
모델테스트	Log likelihood=-870.19, Pseudo-R-squared=32.36%			
	$\chi^2=832.58$ ***			

* P<0.1, ** P<0.05, *** P<0.01

부모 또는 (조)모친과 동거하는 여성의 미취업은 비자발적이고 취업의사를 가질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가계소득의 효과도 세 범주에 대해 모두 음의 부호로 나타나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비자발적이고 취업의사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주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미취업이 비자발적인 경향이 있지만 취업의사 유무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이 있거나 직업훈련을 받은 미취업 여성은 미취업이 비자발적일 확률이 유의하게 높다. 이전에 관리 및 전문직, 준전문직 및 기술직, 판매 및 서비스직에 종사했던 경우 미취업이 자발적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 사무직이나 기능 및 노무직에 종사했던 여성은 미취업이 비자발적이고 취업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 이전에 정규직 임금근로에 종사했던 여성은 비자발적 미취업일 확률은 유의하게 높지만 취업의사를 가질 가능성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 임금근로에 종사한 여성은 자발적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 전 직장에서 받았던 임금이나 보수가 높을수록 취업의사를 가질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 남성 가장의 직업이 준전문직이거나 기술직인 경우 가계에 남성 가장이 없는 여성에 비해 미취업이 비자발적이고 취업의사가 있을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다. 남성 가장의 직업이 사무직인 경우 미취업이 비자발적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로짓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집단이 자발적/취업의사 없는 여성이기 때문이 첫 번째 열(변수 다음 열)에 나타난 결과를 통해 공통으로 취업의사가 없지만 미취업이 자발적인지 아니면 비자발적인지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를 알 수 있다.

회귀계수가 마이너스 부호를 나타낸 특성을 가진 여성은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커서 미취업 상태가 자발적일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로 노동시장으로의 유입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고 회귀계수가 양의 부호를 나타내는 특성을 가진 여성은 시장임금이 의중임금보다 커서 시장에 이들 노동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노동시장 진입이 보다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으로의 유입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비자발적 미취업 여성의 특성을 정리하면 (1)학력이 높고 (2)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전공은 사회과학이나 이공계열이며 (3)미혼 (4)초등학생 자녀가 있고 (5)부모 혹은 모친과 동거 (6)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며 (7)자격증이 있거나 직업훈련을 받았고 (8)이전에 사무직 또는 기능 및 노무직에 종사 (9)이전에 정규직임금근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다. 반대로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아서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은 여성의 특징은 (1)학력이 중학교 이하로 낮거나 전문대 이상 학력자인 경우는 전공이 교육계열이거나 예체능·기타 (2)기혼자 (3)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가 있거나 (4)가계소득이 높으며 (5)이전 직업이 관리 및 전문직, 준전문직 및 기술직, 판매 및 서비스직에 종사한 경험이 있고 (6)이전에 비정규직 근로 경험이 있거나 (7)남성 가장의 직업이 사무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열에 나타난 결과는 비교 범주가 공통으로 자발적 미취업인 경우로서 취업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를 알려 준다. 전공이 교육계열이거나 광역시에 거주하며, (조)부모나 (조)모친과 동거하는 여성,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이전 직장에서 임금 및 보수가 높을수록 취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은 취업의사가

없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 열에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의중임금이 높고 취업할 의사가 없는 여성과 대비하여 시장임금이 의중임금보다 높으면서 취업의사도 있어서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의 특성을 개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미취업 여성은 대체로 학력이 높고 미혼자이다. 기혼자이면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닐 만큼 성장하였고 영유가 자녀가 있는 경우는 드물며 가사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큰 부모나 모친과 함께 사는 경향이 있다. 가계의 경제 형편이 좋지 않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자격증이 있거나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취업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를 한 여성들이다. 이전에 전문직 및 관리직, 준전문직 및 기술직, 판매 및 서비스직에 종사했던 여성은 이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낮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4년간의 여성 노동시장 활동 변화추이를 보면 20-45세 여성의 대다수는 취업했으면 취업상태를, 취업하지 않았으면 미취업상태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대략 여성의 35% 내외는 취업상태를, 약 36% 내외는 미취업상태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약 32% 내외는 취업과 미취업 상태에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직후에 취업의사가 있는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후부터는 취업자가 미취업 상태로 변동하는 경향보다 미취업자가 취업하는 경향이 보다 우세하게 나타났다.

둘째, 구직자와 취업의사가 있는 여성 가운데 다음해에 취업한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며 취업하지 못한 경우 다음해에는 취업의사가 없는 완전미취업자로 이동하는 경향이 우세하다. 따라서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여성은 구직포기와 더불어 취업포기자가 되어 취업의사가 없는 미취업자로 편입되고 있어서 취업 의사에 관한 정보로는 여성의 미취업 상태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취업자의 시장임금과 의중임금을 추정해 본 결과 평균적으로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게 나타나 미취업은 가계생산과 시장노동 시간배분에 대한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의 결과임을 시사한다.

넷째, 추정된 시장임금과 의중임금을 비교하여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큰 경우를 자발적 미취업으로 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비자발적 미취업으로 하여 이 두 집단의 규모를 보면 자발적 미취업자는 약 60%, 비자발적 미취업자가 약 40% 정도로 나타났다. 미취업 여성의 약 절반 정도는 자발적/취업의사 없는 미취업자, 약 10%는 자발적/취업의사 있는 미취업자, 약 30%는 비자발적/취업의사 없는 미취업자, 약 10%는 비자발적/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로 나타나 적극적인 여성인력 활용정책의 실행으로 미취업자의 약 50% 정도를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현행의 50% 대에서 75% 이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넷째, 비자발적 미취업자의 특성은 학력이 높거나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들로서 노장노동에 유용한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있어서 노동생산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비자발적 미취업자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저기능, 저임금 직종보다 고학력 여성의 전문지식과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직종을 중심으로 한 인력활용정책과 노동 수요의 확대가 효과적인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교육내용이 실제 직장업무와 연관이 높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여성에게 취업할 의사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점은 여성들에게 실제 취업현장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알게 하는 것은 취업에 대한 동기를 갖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발적 미취업자라도 교육계열 전공과 광역시 거주가 취업의사를 갖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로부터 여성인력활용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산업사회에서 교육분야는 사회적인 기여도가 높고 일의 내용이 소프트하며 직장 환경이 여성 친화적이어서 고학력 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취업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정보화 사회에서 일을 통하여 개인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혜택을 줄 수 있고 소프트한 내용을 가진 다양한 직종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분야에 여성 노동력을 준비시키고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가 클 것이다.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큰 광역시에서 취업의사가 있는 여성이 유의하게 많은 결과는 우리 사회에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이에 따라 일을 하고자하는 여성도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여성의 이전 직업이 미취업 여성의 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점도 신중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전에 관리 및 전문직, 준전문직 및 기술직, 판매 및 서비스직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취업경험이 없는 여성에 비해 미취업이 자발적이어서 취업가능성이 낮은데 비해 사무직이나 기능 및 노무직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미취업이 비자발적이어서 노동 시장에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취업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지식이나 기술의 진부화가 보다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에 종사하다가 그만 둔 여성은 일이 반복적이고 단순한 사무직이나 단순노무직에 비해서 노동시장 재진입이 보다 어려움을 시사한다. 따라서 고기능의 여성 노동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한 가치가 높은 전문 여성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 가장 필수적인 방안은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존재, 초등학생 자녀의 존재, 가사조력자로 기여하는 (조)모친의 동거가 미취업 상태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대체로 가계생산 부담이 적은 여성의 의중임금이 낮아져서 취업상태가 비자발적이거나 취업의사가 있는 경향이 있다. 여성의 직장 일은 자녀양육과 가사일이 원활하게 잘 수행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유아는 의중임금을 높이고 취업의사를 갖지 않도록 작용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보육 시설의 양적인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고학력 여성을 취업으로 유도하고 노동시장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공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육서비스를 확장 정책은 양적인 공급의 확대만으로는 전문 여성인력의 노동력 활용 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시장임금이 의중임금보다 높아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노동시장으로 진입이 보다 가능한 여성은 대체로 학력이 높고 자녀 양육과 가사일에 대한 부담이 적으며 가계의 소득에 대한 요구가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여성 노동에 대한 수요, 일의 특성이 여성의 미취업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저학력, 저기능, 저임금 여성 인력을 중심으로 한 여성인력 활용 정책은 한계에 도달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여성인력 활용 정책이 이러한 여성의 요구와 특성에 맞추어 시행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여성의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의 의중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아줄 보육서비스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성의 노동이 가계로 되돌아가 노동공급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취업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출산은 이미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 노동의 공급은 여성 노동에 대한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또한 노동수요를 충족시키는 적절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노동시장에서 그 성과가 구체화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 기술을 가진 고학력 여성 중심의 여성 친화적인 직업 개발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 수요가 증대하고 사회의 디지털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분야에서 인력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분야는 여성 친화적인 특성이 있다. 여성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새롭게 개발되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복지 및 정보 분야에 필요한 전문 여성 인력을 준비시켜 배출하고 투입할 수 있는 공급측면에서의 정책적 접근과 아울러 여성의 고용을 활성화시키고 취업 장에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성차별적인 관행을 근절하는 수요측면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맞물린 통합적인 여성인력 활용 방안이 수립되어 실행될 필요가 있다.

여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와 취업 지도를 노동시장 상태와 인력 수요 전망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장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차원에서 실행하는 것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성인력의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 고용을 확대하고 업무 배분, 승진, 진급에서 여성을 차별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상의 혜택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평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것은 여성 노동 수요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 인력을 활용하여 성공을 거둔 사업장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여성 노동의 생산성과 성차별의 비용을 인식시키고 여성 노동력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관찰불가능한 미취업자의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을 추정된 값에 근거

하여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의중임금과 시장임금과 다를 수 있고, 추정치의 사용에 따른 오차는 불가피하다. 더욱이 연구 결과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적절한 선행연구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잠정적인 결론이며 향후 표본이나 시점을 달리한 연구를 통하여 검토되고 검증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금재호(2000). 경제위기와 여성인력의 활성화;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한국여성경제학회 3차 학술세미나 자료집』
- 김순미, 김혜연(1998). 성인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및 노동이동 의사의 상호관련성. 『대한가정학회지』 36(1). 65-79.
- 김영옥(1998) 『여성취업력의 동태적인 변화분석』 한국여성개발원
- 김지경(2002). 「기혼여성의 출산 후 경력단절 및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경, 조유현(2001).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2). 15-24.
- 김혜연. 2000. 기혼여성의 노동이동 가능성: 노동이동의사와 영향요인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9). 143-157.
- 문숙재, 김순미, 윤소영 (1996).취업여성의 노동중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6
- 박수미 (2002). 한국여성들의 첫 취업진입·퇴장에 미치는 생애사건의 역동적 영향. 『한국사회학』 36 (2). 145-174
- 방하남. 1996. 여성노동력의 노동시장 전이과정의 동태적 분석: 미국 젊은 여성들의 경우. 『한국사회학』 제30집. 봄호. 93-124.
- 여정성(1994). 기혼여성의 취업과 자녀출산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2(3), 71-83
- 조유현(1998). 여성노동공급에 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6(11), 209-218.
- 조정문(1994). 결혼 후 여성의 취업단절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5(1), 115-132.
- 최강식, 정진화(1997).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 단절형상과 대책. 『산업관계연구』 7. 381-407.
- Abbot, M. & Ashenfelter, O. (1976). "Labor Supply, Commodity Demand and the Allocation of Time". *Review of Economics Studies*, 43, 389-411
- Becker, G. S. (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75 (299). 493-517
- Blau, F. D. & Ferber, N. A. (1986). *The Economics of Women, Men, and Work*, New York, New Jersey: Prentice-Hall
- Ferber, M. A. & Green, C. (1985). "Homemaker's Imputed Wages: Results of the Heckman Technique Compared with Women's Own Estimates". *Journal of Human Resources*, 20-1, 91-99
- Ferber, M. A. & Green, C. (1985). "Homemaker's Imputed Wages: Results of the Heckman Technique Compared with Women's Own Estimates". *Journal of Human Resources*,

20-1, 91-99

Killingsworth, M. & Heckman, J.J. (1986). "Female Labor Supply: A Survey" in O.C.

Ashenfelter & R. Layard (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1, 103-198. New York:
North-Holland Publishing Co.

<부표 1> 구직자의 전년도 경제활동 상태-빈도(%)

		1998	1999	2000	2001	2002
구직자 수		345	131	94	73	71
1년전	구직 계속		36(27.48)	10(10.64)	12(16.44)	7(9.86)
	비경활(유)		17(12.98)	9(9.57)	9(12.33)	12(16.90)
	비경활(무)		19(14.50)	23(24.47)	17(23.29)	19(26.76)
	취업자		39(29.77)	28(29.79)	16(21.92)	21(29.58)
	신규진입자		20(15.27)	24(25.23)	19(26.03)	12(16.90)
2년전	구직 계속			11(11.70)	2(2.74)	6(8.45)
	비경활(유)			17(18.09)	5(6.85)	3(4.23)
	비경활(무)			11(11.70)	22(30.14)	17(23.94)
	취업자			24(25.53)	21(28.77)	18(25.35)
	신규진입자			27(32.98)	23(31.51)	27(38.03)
3년전	구직 계속				12(16.44)	7(9.86)
	비경활(유)				9(12.33)	3(4.23)
	비경활(무)				10(13.70)	22(30.99)
	취업자				19(26.03)	11(15.49)
	신규진입자				23(31.51)	28(39.44)
4년전	구직 계속					7(9.86)
	비경활(유)					6(8.45)
	비경활(무)					19(26.76)
	취업자					14(19.72)
	신규진입자					25(35.21)

<부표 2> 구직자의 다음 년도 경제활동 상태-빈도(%)

		1998	1999	2000	2001	2002
구직자 수		345	131	90	73	71
1년후	구직 계속	36(10.43)	10(7.63)	12(12.77)	7(9.59)	
	비경활(유)	36(10.43)	21(16.03)	6(6.38)	7(9.59)	
	비경활(무)	89(25.80)	35(26.72)	22(23.40)	17(23.29)	
	취업자	119(34.49)	41(31.30)	36(38.30)	30(41.10)	
	표본탈락자	65(18.84)	24(18.32)	18(19.15)	12(16.44)	
2년후	구직 계속	11(3.19)	2(1.53)	6(6.38)		
	비경활(유)	28(8.12)	18(1.53)	5(5.32)		
	비경활(무)	86(24.93)	20(15.27)	20(21.28)		
	취업자	108(31.30)	42(32.06)	38(40.43)		
	표본탈락자	112(32.46)	49(37.40)	25(26.60)		
3년전	구직 계속	12(3.48)	7(5.34)			
	비경활(유)	36(10.43)	7(5.34)			
	비경활(무)	69(20.00)	16(12.21)			
	취업자	99(28.70)	48(36.64)			
	표본탈락자	129(37.39)	53(40.46)			
4년후	구직 계속	7(2.03)				
	비경활(유)	19(5.51)				
	비경활(무)	71(20.58)				
	취업자	103(29.86)				
	표본탈락자	145(42.03)				

<부표 3>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 여성의 전년도 경제활동 상태-빈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 여성 수		212	222	223	161
1년전					
계속		55(25.94)	33(14.86)	51(22.87)	40(24.84)
구직자		36(16.98)	21(9.46)	6(2.84)	7(4.35)
비경활(무)		67(31.60)	101(45.50)	87(39.01)	63(39.13)
취업자		37(17.45)	46(20.72)	38(17.04)	31(19.25)
신규진입자		17(8.02)	21(9.46)	41(18.39)	20(12.42)
2년전					
계속			55(24.77)	25(11.21)	19(11.80)
구직자			28(12.61)	18(8.07)	5(3.11)
비경활(무)			66(29.73)	83(37.22)	58(36.02)
취업자			54(24.32)	53(23.77)	41(25.47)
신규진입자			19(8.56)	44(19.73)	38(23.60)
3년전					
계속				37(16.59)	17(10.56)
구직자				36(16.14)	7(4.35)
비경활(무)				69(30.94)	54(33.54)
취업자				45(20.18)	40(24.84)
신규진입자				36(16.14)	43(26.71)
4년전					
계속					27(16.77)
구직자					19(11.80)
비경활(무)					45(27.95)
취업자					40(24.84)
신규진입자					30(18.63)

<부표 4>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 여성의 다음 년도 경제활동 상태-빈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취업의사 있는 비경제활동 여성 수	531	212	222	223	
1년후					
계속	55(10.36)	33(15.57)	51(22.97)	40(17.94)	
구직자	17(3.20)	9(4.25)	9(4.15)	12(5.38)	
비경활(무)	233(43.88)	96(45.28)	67(30.18)	87(39.01)	
취업자	125(23.54)	35(16.51)	47(21.17)	43(19.28)	
표본탈락자	101(19.02)	39(18.40)	51(23.50)	41(18.39)	
2년후					
계속	55(10.36)	25(11.79)	19(8.00)		
구직자	17(3.20)	5(2.36)	3(1.35)		
비경활(무)	179(33.71)	76(35.85)	67(30.18)		
취업자	115(21.66)	39(18.40)	68(30.63)		
표본탈락자	165(31.07)	67(31.60)	65(29.28)		
3년전					
계속	37(6.97)	17(8.02)			
구직자	9(1.69)	3(1.42)			
비경활(무)	166(31.26)	68(32.08)			
취업자	121(22.79)	47(22.17)			
표본탈락자	198(37.29)	77(36.32)			
4년후					
계속	27(5.08)				
구직자	6(1.13)				
비경활(무)	137(25.80)				
취업자	135(25.42)				
표본탈락자	226(42.56)				

<부표 5>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여성의 전년도 경제활동 상태-빈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취업의사가 없는 여성			1142	1016	930	863
1년전	계속		585(51.23)	661(65.06)	566(60.86)	546(63.27)
	구직자		89(7.79)	35(3.44)	22(2.37)	17(1.97)
	비경활(유)		233(20.40)	96(9.45)	67(7.20)	87(10.08)
	취업자		158(13.84)	130(12.80)	117(12.58)	109(12.63)
	신규진입자		77(6.74)	129(12.59)	158(16.99)	104(12.05)
2년전	계속			490(48.23)	513(55.16)	490(56.78)
	구직자			86(8.46)	20(2.15)	20(2.32)
	비경활(유)			179(17.62)	76(8.17)	67(7.76)
	취업자			175(17.22)	153(16.45)	135(15.64)
	신규진입자			86(8.46)	168(18.06)	151(17.50)
3년전	계속				408(43.87)	456(51.24)
	구직자				69(7.42)	16(1.85)
	비경활(유)				166(17.85)	68(7.88)
	취업자				175(18.82)	179(20.74)
	신규진입자				112(12.04)	149(17.27)
4년전	계속					374(43.34)
	구직자					71(8.23)
	비경활(유)					137(15.81)
	취업자					183(21.21)
	신규진입자					98(11.36)

<부표 6>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여성의 다음 년도 경제활동 상태-빈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취업의사 없는 비경제활동여성		986	1142	1016	930	
1년후	계속	585(59.33)	661(57.88)	566(55.71)	546(58.71)	
	구직자	19(1.93)	23(2.01)	17(1.67)	19(2.04)	
	비경제활(유)	67(6.80)	101(8.84)	87(8.56)	63(6.77)	
	취업자	127(12.88)	124(10.86)	135(13.29)	133(14.30)	
	표본탈락자	188(19.07)	233(20.40)	211(20.77)	169(18.17)	
2년후	계속	490(49.70)	513(44.92)	490(48.23)		
	구직자	11(1.20)	22(1.93)	17(1.67)		
	비경제활(유)	66(6.69)	83(7.27)	58(5.71)		
	취업자	134(13.59)	173(15.15)	176(17.32)		
	표본탈락자	285(28.90)	351(30.74)	275(27.07)		
3년전	계속	408(41.38)	451(39.49)			
	구직자	10(1.01)	22(1.93)			
	비경제활(유)	69(7.00)	54(4.73)			
	취업자	157(15.92)	208(18.21)			
	표본탈락자	342(34.69)	407(35.64)			
4년후	계속	374(37.93)				
	구직자	19(1.93)				
	비경제활(유)	45(4.56)				
	취업자	178(18.05)				
	표본탈락자	370(37.53)				

<부표 7> 취업 여성의 전년도 경제활동 상태-빈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취업자 수			1594	1449	1439	1420
1년전	취업 계속		1084(68.01)	1177(77.09)	999(69.42)	1030(72.54)
	구직자		119(7.47)	41(2.83)	36(2.50)	30(2.11)
	비경활(유)		125(7.84)	35(2.42)	47(3.27)	43(3.03)
	비경활(무)		127(7.97)	124(8.56)	135(9.38)	133(9.37)
	신규진입자		139(8.72)	132(9.11)	222(15.43)	184(12.96)
2년전	취업 계속			892(61.56)	910(63.24)	832(58.59)
	구직자			108(7.45)	42(2.92)	38(2.68)
	비경활(유)			115(7.94)	39(2.71)	68(4.79)
	비경활(무)			134(9.25)	173(12.02)	179(12.39)
	신규진입자			200(13.80)	275(19.11)	306(21.55)
3년전	취업 계속				789(54.83)	801(56.41)
	구직자				99(6.88)	48(3.38)
	비경활(유)				121(8.41)	47(3.31)
	비경활(무)				157(10.91)	208(14.65)
	신규진입자				273(18.97)	316(22.55)
4년전	취업 계속					714(50.28)
	구직자					103(7.25)
	비경활(유)					135(9.51)
	비경활(무)					178(12.54)
	신규진입자					290(20.42)

<부표 8> 취업여성의 다음 년도 경제활동 상태-빈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취업자 수		1664	1594	1449	1439	
1년후	취업 계속	1084(65.14)	1117(70.08)	999(68.94)	1030(71.58)	
	구직자	39(2.34)	28(1.76)	16(1.10)	21(1.46)	
	비경활(유)	37(2.22)	46(2.89)	38(2.62)	31(2.15)	
	비경활(무)	158(9.50)	130(8.16)	117(8.07)	109(7.57)	
	표본탈락자	346(20.79)	273(17.13)	279(19.25)	248(17.23)	
2년후	취업 계속	892(53.61)	910(57.09)	832(57.42)		
	구직자	24(1.44)	21(1.32)	18(1.24)		
	비경활(유)	54(3.25)	53(3.32)	41(2.83)		
	비경활(무)	175(10.52)	153(9.60)	135(9.32)		
	표본탈락자	519(31.19)	457(28.67)	423(29.19)		
3년전	취업 계속	789(47.42)	801(50.25)			
	구직자	19(1.14)	11(0.69)			
	비경활(유)	45(2.70)	40(2.51)			
	비경활(무)	175(10.52)	179(11.23)			
	표본탈락자	636(38.22)	563(35.32)			
4년후	취업 계속	714(42.91)				
	구직자	14(0.84)				
	비경활(유)	40(2.40)				
	비경활(무)	183(11.00)				
	표본탈락자	713(43.85)				